

貴重本 해제자료 소개

朱子增損呂氏鄉約〔諺解〕 / 朱熹(宋) 編

이 두 영
(정보관리과)

〈목 차〉

| | |
|-----------------|----------------|
| I. 呂氏鄉約에 대한 概觀 | 3. 形態事項에 대한 考察 |
| II. 體裁와 內容上의 特徵 | 4. 體裁와 語彙的인 考察 |
| 1. 發行年에 대한 考察 | III. 參考文獻 |
| 2. 乙亥字本에 대한 考察 | |

I. 呂氏鄉約에 대한 概觀

中國北宋 때 陝西省 藍田縣의 大忠·大防·大鈞·大臨 等 呂氏 형제가 지은 呂氏鄉約¹⁾에 朱子가 增損하여 註釋을 붙인 것이 〈朱子增損 呂氏鄉約〉이고, 이 책에 借字로 口訣을 달고 諺解를 덧붙인 것이 〈朱子增損 呂氏鄉約諺解〉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518년(중종 13) 당시 경상도 관찰사였던 金安國²⁾에 의해 경상도에서 〈二倫行實圖〉 〈正俗諺解〉 등과 함께 諺解本이 刊行되었다³⁾.

1) 오늘날 실물은 傳하지 않는다. 다만 내용은 주자증손여씨향약에 의해서 알 뿐이다. 즉 以上鄉約四條 本出藍田呂氏 今取其他書 及附已意 稍增損之 以通于今 而又爲月旦集會讀約之禮 如左方(30b)라 하였다.

2) 慕齋集 卷十五 附錄 行狀에 의하면 金安國의 字는 國卿, 號는 慕齋, 本貫은 義城이다. 奉訓郎禮賓寺參奉인 璉의 아들, 參判을 지낸 定國의 兄이다.

3) 여씨향약언해가 경상도에서 金安國에 의하여 1518년 간행되었음 알 수 있는 근거.

① 二倫行實圖에 실린 1518년 3월의 姜渾의 序文을 보면, 경상도 관찰사 金安國에 의하여 번역되어 諺解呂氏鄉約이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今慶尙道觀察使 金公諱安國…又令慶州安東等五邑 刊書籍之有關於治道者凡十一 其曰童蒙須知 正蒙養也 曰口訣小學 培根本也 曰三綱二倫行實 明人倫也 曰性理大全 崇正學也 曰諺解正俗諺解呂氏鄉約 正鄉俗也 曰諺解農書蠶書 敦本業也 曰諺解瘡疹方辟瘟方 救天札也.

② 金安國이 관찰사를 그만두고 서울로 와서 上奏한 記錄이 실린 朝鮮中宗實錄 13년(1518) 4월 己巳條을 보면, 同知中樞府使 金安國啓曰 臣爲慶尙道觀察使…取古人之書 可以善俗者 詳加諺解 頒道內以教之 此等書冊 臣有志修撰 而第緣事務煩劇 未遑詳悉 錯誤必多 今方別設撰集廳 印出文籍 此等

이 책의 내용을 要約하면, 同鄉人이 서로 警戒하고 扶助하여야 할 일로서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의 네 綱目을 주 정신으로 이루어 졌다. 이는 착한 것을 권하고 惡한 것을 懲戒하여, 어렵고 구차한 때에 서로 돕고 救援하기를 目的하는 鄉村의 自治規約으로 勸獎하는 國家施策과 잘 어울리므로, 그 이후에도 여러 번 重刊되어 數種의 異本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여기서 解題·紹介하고자하는 資料는 1574년(선조 7) 당시 校書館 提調인 柳希春이 主管하여 간행한 乙亥字本이다.

II. 體裁와 內容上的 特徵

1. 發行年에 대한 考察

임금이 각종 下賜品에 찍는 <宣賜之記> 璽寶가 卷首에 날인되어 있으며, 임금이 신하에게 물건을 내리어 준다는 <內賜記>⁴⁾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宣祖7(1574) 校書館에서 刊行된 것으로 推定할 수 있는 전형적인 官撰本이며, 특히 이 책은 뒷 表紙 안쪽에 墨書로 1575년 奉常寺 主簿 朱德元이 타인에게 증여한 경위를 1614년에 덧붙인 藏書記⁵⁾가 있어 所藏者 흐름을 알 수 있다.

2. 乙亥字本⁶⁾에 대한 考察

形態事項 考察(3항)과 같이 漢文과 國文에 따른 每面行數의 差異라든지, 欄上에 加印하거나 印面의 誤字를 오려내고 다시 인쇄하여 붙인 補正部分이 있는 점 等 同時代에 나

書使之更加讎校 印頒八道 則淬勵風化 庶有小益也 如呂氏鄉約正俗等書 乃敦厚風俗之書也 鄉約雖載於性理大全 而無註解 假方之人 未易通曉 故臣乃詳其諺解 使人接目便解 正俗亦翻以諺字.

4) 內賜記 : 萬曆二年(1574)二月日 內賜奉常寺主簿朱德元呂氏鄉約一件 命除謝 恩 左承旨臣鄭[惟一](押). <朱德元은 熊川人 郡守 良祐의 아들로 1537년 태어나 1573년 甲科三人으로 及第하여 郡守를 지냄>

5) 藏書記 : 乙亥(1575)月日朱判官所贈 祖父於朱城主交分甚厚冊以 贈之前一行標書乃亡親 手迹尙新伏增感愴之至 甲寅(1614)季夏十日克欽書

6) 乙亥字는 姜希顔의 松雪體를 字本으로 하여 늦쇠로 鑄造한 活字로 筆書體로서 甲寅字 보다는 字劃이 가늘고 한글字 小字는 甲寅字보다 더 작으며 甲寅字 다음으로 많이 쓰여진 활자이다.

은 乙亥字本の 特徵⁷⁾이라 하겠으며 活字의 材料는 訛舛이다.

3. 形態事項에 대한 考察

漢韓對譯된 內賜本이다. 책의 크기는 세로 34.4cm, 가로 21.2cm이다. 四周雙邊, 半郭은 세로 23.6cm, 가로 16.6cm이고, 有界이다. 原文(漢文)은 每面 10행, 한글은 9행, 註釋은 雙行인데 모두 每行 18자로 된다. 版心은 大黑口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張 43은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인데, 版心書名은 呂氏鄉約(張 41은 呂氏約鄉)과 張次가 魚尾 사이에 있다. 紙質은 楮紙인데, 이는 임진란 前後의 책에 보이는 것이다.

4. 體裁와 語彙的인 考察⁸⁾

1518년(중종 13) 金安國에 의해 慶尙道에서 刊行된 原刊本の 잘못을 校正하여 1574년(선조 7) 校書館에서 重刊한 책으로서 漢文 原文을 內容에 따라 나누고 각 단락 뒤에 諺解를 덧붙였다. 한글만으로 된 翻譯은 대체로 原文에 충실한 直譯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部分的으로는 註釋에 해당하는 句節을 포함시킨 翻譯도 있다. 한문 원문에는 正字로 借字 口訣을 달았으며 諺解에는 傍點이 表示되어 있다.

表記法을 살펴보면 <곧티(如)(20a면2,4행)>과 같이 중철표기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尊經閣本⁹⁾과 같이 두드러진 傾向¹⁰⁾을 띠는 것은 아니다. 語彙的인 측면에서 보면 존경각본의 <뜯주우려(趨)(18b면3행), 도브며(22b면9행)>가 각각 <드라드러(21a면3행), 도으며(27b면1행)>로 校正되었고, <정붓듬흐거든(23a면3행), 주신붓(22b면7행)>도 각각 <정곳듬흐거든(27b면7행) 주신곳(27a면8행)>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助詞 <-붓>이 쓰였던 자리가 모두 <-곳>으로 바뀐 점 등 語形의 變化나 方言形의 反映 樣相이 보인다.

7) 安秉禧. “呂氏鄉約諺解解題”. 서울 : 檀國大學校 出版部. 1992.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編. 呂氏鄉約諺解. p.283-302.

8) 安秉禧. 上揭書. p.283-302.

남윤진. “呂氏鄉約諺解”. 서울, 太學社, 2001. 奎章閣所藏語文學資料. 語學編 解說. p.261-263.

9) 日本 東京의 尊經閣文庫所藏 木板本을 指稱함.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編. 呂氏鄉約諺解. 서울 : 檀國大學校 出版部. 1992. pp.189-259 參照하여 以下 尊經閣本 面數를 表示함.

10) 尊經閣本에서는 直月(直月)를(1b면10행, 2a면5행), 곧티(如)(17b면9,10행), 문늬(19a면6행), 손늬(20a면7행) 등과 같이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助詞 〈붓〉은 15세기 중엽의 文獻에서 보이던 것인데 여기에서는 〈긔〉으로 表記되어 있는 것을 보면 國語의 語彙變遷史 研究에 귀중한 자료라 하겠다.

한편 尊經閣本에서 보이는 脫字나 誤字 즉, 〈且退後皆放此(10b면8행)〉를 〈或且退後皆放此(12a면7행)〉, 〈戲謂遊笑無度(7a면2행)〉를 〈戲謂戲笑無度(8a면3행)〉로 補正하였으며 尊經閣本의 〈사름 들흐로(1b면8행), 모딘(34b면7행)〉에 대하여 〈두 사름으로(2a면1행), 사오나온(42a면1행)〉과 같이 翻譯 趣向의 差異에서 오는 變改라든가 翻譯上의 誤謬도 바로 잡아졌다. 예시하면, 〈輩行〉을 〈물지서호뇨미(17a면3행)〉로 誤譯되었던 것을 〈물이며 항닐이(19a면1행)〉로 바로 잡아준 것 등을 指摘할 수 있겠다.

한편 尊經閣本에서는 보이지 않는 欄上의 〈成一作交(7a면)〉라는 附記가 보이며, 版心題(41면)에는 〈呂氏約鄉〉으로 잘못되어있다.

책 뒤(第 43張)에 〈月旦集會讀約之圖〉를 덧붙였는데, 주자가 增補한 讀約之禮를 그림으로 보여 一目瞭然하게 하였다.

Ⅲ. 參考文獻

-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編. 呂氏鄉約諺解. 서울 : 檀國大學校 出版部, 1992.
 呂氏鄉約 正俗諺解. 合本. 影印本. 서울 : 原文社, 1976.
 서울大學校奎章閣編. 奎章閣所藏語文學資料, 語學編 解說. 서울 : 同奎章閣, 2001.
 손보기 著. 한국의 고활자 = Early Korean photography. 서울 : 寶晉齋, 1971.
 曹伸(朝鮮) 撰. 二倫行實圖 木板本. [刊寫地未詳] : 箕營, 英祖3年(1727).
 國史編纂委員會 編. 朝鮮王朝實錄. 서울 : 國史編纂委員會, 1955-58.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북한) 역. 이조실록. 서울 : 여강출판사, 1993.

